Arlberg Austria - Patrick Steiner

그는 노을 속 한 마리 새가 되었다

설릉과 크레바스를 헤쳐 나가고, 얼음동굴을 날아다니는 클라이머들

사진 IMS 제공 **글** 한필석 편집장

2017 IMS Photo Contest

클라이머들은 꿈을 좇는 이들이다. 이들은 높은 산을 오르고 험난한 벽을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 일상에 빠져 사는 이들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꼭 등정과 모험이 목적의 전부는 아니다. 거친 설릉을 헤쳐 나아가고, 험악한 크레바스 지대를 빠져나가고, 또 얼음 동굴을 박쥐처럼 날아다니는 등 예측불허의 과정을 즐기고 그 과정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현상과 풍경을 바라보며 짜릿한 희열을 느낀다.

가파른 설원을 질주하는 스노보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엄청난 속도와 간을 쪼그라들게 하는 스릴을 만끽하면서 순식간에 바람과 함께 스쳐지나가는 풍광을 즐긴다. 그는 지금 새가 됐다. 설원을 점프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순간 그는 노을 속 한 마리 새가 되었다.

Passo - Christoph Cherschneider

Island Peak - David Ruiz

Mer de Glace - Alex Buisse